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인적자원연구실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민현주
출장기간	당 초	2007.7.01 - 7.7	출장지	당 초	아일랜드	
	변 경			변 경		
출장목적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동향 정보 수집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 출장비 약 2700 천원 )					
주최기관	N/A					
방문기관						
Employment Service Office City Center Training Center NESC(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mpoloyment Research Center						

2007. 8. 27.

출 장 복 명 자 : 민 현 주

#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자 : 민현주 연구위원  
인적자원연구실

1. 출 장 지 :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FAS 등 4개 기관(FAS, NESC, Expert Group on Future Skills Needs, Employment Research Center)
2. 출장기간 : 2007.7.01 ~ 7. 07
3. 출 장 자 : 민현주 연구위원
4. 주요 회의 내용

□ 방문기관

- (1) Employment Service Office(FAS, Ireland's Training and Employment Authority)  
27-33 Upper Baggot Street  
Dublin 4, Ireland  
tel 353(0)1 607 0500
- (2) City Center Training Center(FAS, Ireland's Training and Employment Authority)  
57/60 Jervis Street  
Dublin 1, Ireland  
tel 353(0)1 804 4600
- (3) NESC(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6 Parnell Square  
Dublin 1, Ireland  
tel 353(0)1 814 6300
- (4) Employment Research Center  
Trinity College Dublin  
2 College Green, Dublin 2  
Ireland  
tel 353(0)1 608 1875

## □ 주요 면담내용

### 1) 연구개요

- 아일랜드 여성노동시장의 현황파악
- 기관의 역할과 주요 연구사업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사례
- 연구사업 중 사회서비스 중 가사, 간병 및 보육 직종에의 여성취업과 관련된 연구사업

### 2) 심층면담

- 아일랜드 경제성장과 여성고용확대와의 관련성
-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과 여성고용과의 관련성
- 경제성장과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와의 관련성 및 여성고용확대와의 관련성
- 사회서비스 분야와의 관련성을 갖는 구인-구직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관실태

### ●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이 여성고용확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의

- 아일랜드는 최근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달성하면서 유럽 내 뿐 아니라 여타 선진 산업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경제성장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질적 성장까지 함께 이룬 것이어서 더욱 그 성과에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최근의 아일랜드 경제성장이 여성노동의 확대를 직접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이 경험한 것처럼 아일랜드도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노동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은 사회협약에 의한 일자리 확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확대

는 여성고용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지난 7년 동안 전 산업에 걸쳐 약 26%정도 여성고용비중이 증가하였음. 아일랜드도 전통적인 성 역할 분화가 강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수치는 여성노동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전반적인 고용확대를 가져오면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고용확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아일랜드에서 일자리 증가는 더블린 등 주요 행정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균등한 산업배분과 일자리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확대 또한 몇몇 대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전반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음.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함.

#### ●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 속에서 여성고용확대의 범위에 관한 논의

- 아일랜드는 지난 10여 년간 약 30%를 약간 밑도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이는 어느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일랜드도 여타 선진산업국들처럼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체계가 함께 발달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었고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진출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일랜드는 지난 7년간 사회서비스 분야로 진출한 여성인력은 약 50퍼센트 가까이 증가를 기록했음. 물론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여성인력의 확대가 진행되었으나 그 수준은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다른 선진국들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건설업 등으로의 여성진출은 상당히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음. 사회서비스 분야 다음으로는 도소매업과 호텔 숙박업으로의 여성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직종에의 여성진출이 단연 돋보이고 있음. 정부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 또한 확대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의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의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아일랜드는 선진산업국가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구층이 상당히 젊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및 간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에서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음.

그 다음으로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교육부문이고 그 뒤를 기타 서비스 분야가 따르고 있음. 보육서비스 분야로의 여성진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적 보모보다는 보육원(nursery)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육기관으로 취업하는 여성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추이는 아일랜드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경제의 선진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이미 달성한 국가들이 대체로 경험하는 추이라고 생각됨. 가장 더딘 증가는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이라 할 수 있음.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사서비스 부문은 사회서비스 내에서 논의하기에는 그 성격이 약간 복잡적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아일랜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육 및 가족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아직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가사서비스 부문을 특화시키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서비스 일자리도 분명히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일하는 엄마들의 욕구인 가정 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함께 가사서비스 분야로의 진출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 구인-구직연계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그 내용

- 아일랜드는 다양한 구인-구직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과 직업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Training and Employment Authority(FAS)라는 기관이 있음. 이 기관은 직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 구인-구직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에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수도인 더블린에 메인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서비스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아일랜드 전국에 걸쳐 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각 주요 지역의 사무소들은 그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권역에서 운영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구인-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이 기관은 단순한 직업소개소나 직업훈련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노동시장의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현재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주들의 욕구에 맞춰서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도입하고 구직자들의 직업선택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구직자들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고 원하는 직종이나 사람을 찾고 있는 직종/회사의 정보를 얻거나, 이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직접 정보를 취할 수도 있음. 가용한 직종선정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원하는 대분류 직종을 직종카테고리에서 선정하여, 소분류 직종까지 직접 선택하여 그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직종을 선정하였으면, 그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을 다시 알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훈련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관에서 등록하여 교육받을 수 있음. 또한 구직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선정이라는 취지에 맞춰, 직종 뿐 아니라 원하는 지역, 시간제일자리/전일제 일자리, 고용형태, 노동시장경험, 자신의 현재 기술과 훈련정도 등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구직상태를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구인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주들도 이 FAS기관을 통해서 가용한 구직자 리스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직접 또는 기관을 통해서 구직자와 연계될 수 있음.

- 아일랜드의 고용 및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은 바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편리성이라 할 수 있음. 기관에서 뿐 아니라 기관의 홈페이지 상에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의 내용과 장소를 검색하여 등록할 수 있고, 구직자들의 상황에 맞도록 교육훈련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시간제, 전일제, 또는 야간시간 교육을 원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정도 자신들의 취업을 원하는 직종과 그 직종에서 제공하기 원하는 자신들의 기술수준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일반화된 직종 선택이나 분야 선정이 아닌 상세분류에 따른 직종선택과 그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선정으로 구직자들이 형식적이 아닌 취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구직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초보부터 장인수준의 기술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직업훈련교육기관이 아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훈련기관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단순히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업과 전직종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 여성의 경력단절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에 대한 논의

- 아일랜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다른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인 성별임금격차나 직종 및 산업별 성별 분리 등에 대한 문제는 아일랜드 여성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임. 또한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도



아일랜드 여성들도 공유하는 심각한 문제들임에 분명함. 아일랜드는 한국보다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들 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편임. 그러나 점차 전문직이나 행정직 중심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보육서비스나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일하는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함. 그러나 이들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라 이들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 이는 아일랜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황이어서 낮은 학력이나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일자리가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보육, 간병 또는 가사서비스 등임. 이들 일자리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재취업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직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앞서 말했듯이, 여성인력 중에서 제한된 여성노동 인구층에 해당되는 일자리가 판단됨. 따라서 여성 전반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인력구성의 다차원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일자리 확대정책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